

# 대한산업보건협회 경기북부센터와 경기북부근로자 건강센터의 협업활동




윤종현

대한산업보건협회  
경기북부센터  
사내기자

경기북부 지역사회의 산업안전과 보건을 위해 구성된 지역협의체가 구성되었다. 대한산업보건협회 경기북부센터는 2021년 상·하반기 경기북부 근로자건강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하여 측정 및 검진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장소 협조, 안전보건사업 홍보 등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북부 근로자건강센터는 경기도 양주시 남면 검준공단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양주에 분소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지역 특성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산업단지 지역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안전공단의 지원으로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지난 6월 30일은 상반기 소규모 사업장 집단건강검진 실시 날이었다.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대부

분 센터 내로 방문하여 검진을 진행하는데, 지리적으로 거리가 있는 사업장은 건강검진센터로의 방문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양주시 검준공단 내 위치하고 있는 근로자건강센터와 대한산업보건협회 경기북부센터의 협업으로 장소를 제공받아 상반기 특수건강검진을 진행하게 되었다.

경기북부 근로자건강센터는 150평 규모로 쾌적하고 깔끔했다. 건강센터 선생님들이 환한 미소로 맞아 주어 더욱 밝고 깔끔한 인상을 주었다. 특히 출근하는 것이 즐겁다는 직원들의 말에 내심 놀라기도 했고 부럽기도 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라면 출근 생각만으로도 우울해질터인데, 월요일 출근 시간이 기다려진다나... 센터에 대한 직원들의 자긍심과 일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건강검진을 위해 방문한 노동자들의 열 체크가 먼저 진행됐다. 이후 미리 작성한 모바일 문진표 확인 후 검진이 시작되었다. 산업공단 내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은 대부분 도금작업 및 섬유업종이 주 업종이다. 때문에 대부분 현장 노동자들은 시안화 화합물 및 크롬, 니켈화합물 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고 있었고 작업환경 및 근로조건 또한 좋지 않은 편이다. 대부분 오전 이른시간 검진을 희망하여 물리는



경기북부 근로자건강센터 스테이션

검진자로 검진 진행을 우려했지만, 두 센터의 협업으로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검진 후에는 센터의 여러 장소를 견학하였는데, 그 중 직업트라우마센터라는 곳이 눈에 들어왔다. 마침, 검진 전날인 6월 29일은 경기북부 근로자건강센터 내 직업트라우마센터의 개소식이 있었다고 한다. 직업트라우마센터는 일터에서 충격적인 큰 사건, 사고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한 근로자의 심리적 안정과 업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긴급 심리 안정화를 위한 트라우마 관련 전문 교육, 트라우마별 전문상담 실시, 트라우마 관련 심리검사, 사후관리, 필요시 전문 치료기관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안전과 보건에 대한 사각지대인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을 위해 제도적인 규제와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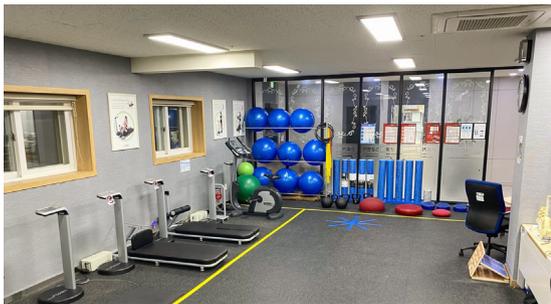


직업트라우마센터 개소식



사업장 건강검진

위\_ 근골격계질환예방실 아래\_ 직업트라우마센터



대재해 발생은 크게 줄지 않는 것이 산업현장의 현실이다. 특히 시스템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 발생율과 직업병 발생율은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제도적 대안의 하나로 근로자건강센터가 개설되었는데, 여러 선생님들의 홍보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단 내 근로자들의 이용도가 그리 높지 않다고 하여 안타까울 뿐이다.

이런 좋은 장소가 노동자들에게 많이 홍보되어 부담 없이 노동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한다. 또한, 이런 협업활동을 통해 지역노동자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해본다.

센터의 목표처럼 일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센터, 즐길 거리가 있는 재미있는 센터, 참여거리가 있는 사랑이 넘치는 센터를 추구하며 모든 노동자들이 다시 찾아오고 싶은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지역사회전문기관, 사업체 등이 같은 목표로 협업하는 날을 기대하고 있다. ☺